

영광군, 관광객 1000만 문화관광도시 도약 박차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 보고회...중점 16건·세부사업 73건 제시 전남체전·장애인체전 연계 모색...축제 질 높이고 다양한 관광 이벤트

영광군이 '영광 방문의 해'를 맞아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등 1000만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본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회는 매가 이벤트이자 전남도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63회 전남도 체육대회, 제32회 전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연계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조기 개막을 목표로 추진배경을 설정하고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 개요와 중점사업 16건에 대한 보고와 실과 소 및 읍·면 연계사업 73건의 세부 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영광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중점사업은 총 4개(관광브랜드구축, 관광콘텐츠개발 및 운영, 홍보마케팅, 관광수용태세 강화)분야 16개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실과 소 연계사업 45개(예산 38개, 비

예산 7개)로 이뤄지며 읍·면 연계 사업 28개(예산 21개, 비예산 7개)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점사업에는 7억3100만원(군비), 실과 소 연계 사업 77억86만원(국비 3억37만원 4.3%, 도비 4억 57만원 5.8%, 군비 69억92만원 89.9%), 읍·면 연계 사업 9억10만원(군 8억36만원 92.7%, 기타 65만원 7.3%)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지역 숙박업소와 특산물 업체 등이 군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24 영광 방문의 해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고 영광군 일천여 공직자 협력 체계를 구축해, 1000만 방문객을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를 다.

보고회 자리에서 강종만 군수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군이 가진 4대종교 문화유적과 백수해

안도로, 칠산타워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내방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칠산타워와 노을전시관 등 유료 관광지 할인이벤트 추진과 체류형·체험형 관광향유 환경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또 6년 연속 전남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도 불갑사관광지 확장 사업 준공과 다화용기 사용 축제장 전체 확대, 상사화 군락지 추가 조성, 불갑사 진입로 경관조형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축제기반을 조성하고 축제의 질을 높인 뒤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1000만 방문객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오연영 영광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장은 "오는 2월14일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비전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2024 영광 방문의 해는 영광군 방문객 1000만 조기달성을 목표로 숙박과 특산물,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방문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최근 열린 '2024 영광 방문의 해 추진계획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1000만 문화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해남군 지난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 1000t 감축 달성

'저탄소 비 논물관리 시범사업' 확대

해남군은 지난 한 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 1000t 감축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남군은 '저탄소 비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계곡면 1곳과 마산면 2곳 등 382.2ha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육천면이 195ha 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남지역에서는 총 576.2ha 면적에서 논물관리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비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농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메탄)를 배출하는 분야는 벼농사이다.

논에서 많은 메탄이 배출되는 것은 메탄생성균이라는 미생물 때문이다. '중간 물때기' '얇게 걸러내기' 등 비 논물관리 기술을 통해 논에 산소를 공급해 메탄생성균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메탄배출량을 감축의 핵심 기술이다.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을 적용해 해남에서는 지난해 약 1029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용차 510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30년생 나무 9만9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은 감축량이다.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의 한 농가가 '저탄소 비 논물관리 기술'을 활용해 재배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이 밖에도 8개 농가는 고효율 보온자재를 이용한 난방비 절감을 통해 154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2030 메탄 서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전국 최

대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해남군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농업 분야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재정분석 평가 3등급 올라 '나' 등급

행안부 전국 243개 지자체 심사

영암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년보다 3단계 오른 나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재정지표로 서면평가·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영암군은 건전성 '나', 효율성 '나' 등급 등을 받아 재정 운영 전반에서 큰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자체 경비 비율을 줄이고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을 높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지방 채무가 없는 '채무 제로 군'으로 꼽힐 정도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편성·심사, 집행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한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55명 모집

다음 달 8일까지 선착순 접수 모바일 앱 통해 24주간 서비스

진도군은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 기기로 건강관리를 받을 5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량계(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업이다.

보건소에 세 차례 방문해 검진받을 수 있는 20세~64세 진도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거나 약물 처방을 받는 이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참가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진도군은 신규 참여자와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등록할 방침이다.

참여자들은 스마트 워치를 받고 3회 무료 건강검사, 모바일 앱을 통한 24주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받는다.

참여율과 성과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신청하려면 오는 2월8일까지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061-540-6912, 6914)에 전화하면 된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 군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진도군 보건소를 찾은 지역민이 '모바일 헬스케어' 작동법을 안내받고 있다. <진도군 제공>

신안군 '피아노 섬, 자은도' 유튜브 영상 터졌다

석 달 만에 조회 수 579만 회

'피아노 섬' 신안 자은도가 등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서 석 달 만에 조회 수 580만 회에 육박했다.

신안군은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피아노 섬, 자은도' 영상이 17일 기준 579만 회를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신안군이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 가운데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영상에는 자은도 백길 해변을 배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담았다.

지난해 10월20일부터 사흘간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에는 4만명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신안군은 문화의 달 행사 이후 피아노의 섬 자은도의 높아진 관심과 인기의 기세를 몰아 '피아노 섬, 자은도'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다음 달 말께는 자은도 해변 곳곳에 피아노를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자은도를 방문하는 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피아노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의 달 행사를



신안 자은도에서 '피아노 섬, 자은도'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579만 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의 한 장면. <신안군 제공>

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1004뮤지엄파크에서는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피아노 축제'가 열릴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피아노 섬, 자은도' 유튜브 영상이 꾸준히 사랑받아 570만이 넘는 역대

최대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은 문화의 달 행사 이후 자은도와 피아노 섬에 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피아노 섬, 자은도'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kwangju.co.kr

목포시 매달 둘째·넷째 주 무료 법률상담

2009년부터 1534명 법률문제 해결

목포시는 매달 두 차례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포시는 고문 변호사 3명, 위촉 변호사 3명 등 총 6명을 선정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법률 상담을 한다.

오는 22일에는 용당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법률 상담이 열린다.

목포시는 이달 현재 누적 309차례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

시민 1534명이 상담을 받아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및 목포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 오모거리 식당 나눔캠페인 200만원 기탁

영광읍 오모거리 식당이 지난 11일 영광군을 방문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차성 오모거리식당 대표는 "올해도 오모거리 식당을 많이 이용해 주신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나눔에 참여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소상공인들도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군은 다행히 많은 단체와 기업, 군민 등 각계각층이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사랑의 온도탑이 108도를 기록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정차성(왼쪽) 오모거리식당 대표가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을 전달한 뒤 강종만 영광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